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 초정밀 소방관제 플랫폼 구축 본격화

## 도, 사업 착수보고회...실시간 정보로 '골든타임' 확보

제주도가 재난사고 대응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데이터 기반 초정밀 실시간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제주도는 지난 23일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서 소방당국(119종합상황실, 소방서, 119센터 등), 자치경찰단, 행정시(교통행정과) 등 이용기관 관계자, 사업자, SK T맵 등 사업 참여기업 등 총 30여 명이 온·오프라인

으로 참석한 가운데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소방관제 통합 플랫폼 구축에 필요한 콘텐츠 구성과 각 부서 및 참여기업 간 역할분담에 대한 참석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한편 착수보고회 이후에는 초정밀 위치기반으로 실시간 출동차량에 대한 통합관제 체계 구축, 신고자 휴대

폰으로 실시간 차량 이동 정보 제공, 운행데이터를 활용한 안전·돌발상황·출동 지연 등 대처를 위한 안전교육 시스템 구축 등이 마련될 전망이다.

특히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재난현장과 소방본부, 현장 내 대원 및 상호 간 현장상황, 피해내용, 지휘내용 공유 등을 통한 업무 효율성 증가로 국민의 생명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신고자는 소방차량의 실시간 이동정보와 도착 예정시간을 안내받을 수 있게 된다. 이서희 기자 [staysf@jejupress.co.kr](mailto:staysf@jejupress.co.kr)

17.0 X 18.2 cm